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14일)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밝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김내영 기자

"2024년 '선명상 보급 원년'으로" 천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비롯해
명상센터 건립·명상법 개발 집중
국제선명상대회도 9월 말 개최
"불교중흥·사회적 역할에 진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가을 국제선명상대회를 기획 중인 조계종이 갑진년을 '선명상 보급'의 원년으로 천명했다.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을 비롯해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 추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 불자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 2568(2024)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선명상 보급을 중심으로 한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이후 공·사석을 불문하고 강조해온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방점이 찍혔다.

"천년을 세우는 간절한 원력으로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열겠다"고 한 해 종단운영 기조를 밝힌 진우 스님은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스님은 "각박한 일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각종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선명상 템플스테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선명상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해 호흡법과 숙련자를 위한 심화과정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에 착수했을 정도로 종단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진우 스님은 △우울할 때 마음을 챙기는 선명상 △화를 가라앉히는 선명상 △시험을 앞두고 정신을 맑히는 선명상 등 다양한 상황별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과 정신적 회복이 꼭 필요한 분들께 먼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오는 4월 종단 공식 선명상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시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사찰 20여 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용 안내 전화 개설 등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지도법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와 기본계획 수립도 진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K-명상 활성화와 세계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2024년 한국불교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사회적 정진을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선명상대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TF팀을 구성한 뒤 기획사가 선정되면 국내외 명상전문가 섭외를 비롯해 주요 지역별 체험행사 기획도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과 선명상 지도자 양성과정 설계, 명상플랫폼 구축 계획안까지 마련한다는 게 종단 목표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시행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 안정화를 통해 전통 문화유산 전승에 힘 쏟는 한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단 개혁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자승 대종사의 유훈이기도 한 청년전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을 연내 완공하고,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의 1동 기념관은 서울 봉은사 일원에, 2동 치유시설은 안성 아미타요양병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연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올해 조계종단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불교중흥과 사회적 역할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며 "갑진년 한 해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고요하다면 늘 행복하다'는 상락아정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조세이 탄광 첫 국회 토론회
관음종 숨은 노력이 이끌다

국회서 사진전, 토론회 개최
조세이 탄광 아픈 역사 알려
관음종, 강제징용 유해 환국
2017년부터 희생자 위령재
한일서 유해 환국 여론 주도
올해도 3월 현지서 위령재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갱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조선에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배상과 사과는 없었고, 183명의 유해 발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월 15, 16일 조세이 탄광과 관련해 유의미한 행사가 국회에서 잇달아 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우원식·김성주·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은 한일관계사학회,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족회, 조세이 탄광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와 함께 1월 15일 이재갑 사진 기획 초대전 '그들은 아직도 바닷물 속에 있다' 개막식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했다. 1월 19일까지 진행된 전시회는 조세이 탄광의 아픈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로 구성됐다.

다큐 사진작가 이재갑 씨는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분들이 있음을 알리고, 나아가 동참을 통해 좀 더 근원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을 인식시키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는 '조세이 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은 김인수 대구교육대 교수, 이경미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연구위원, 김동명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들이 이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진전의 배경에는 불교계, 특히 관음종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다.

2015년 제1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 히로시마 대회에서 당시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가 한국불교계에 조세이 탄광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듬해 1월 30일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위령재를 일본 우베에서 봉행했다. 이후 지속적인 위령재 봉행의 필요성을 인식한 종단협은 관음종에 위령재 사업을 제안했다. 관음종이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무연고 영골들에 대한 환국사업을 펼치기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를 승낙한 관음종은 2017년부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관음종의 이 같은 노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여론 환기에 큰 도움이 됐고, 일본 현지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 중의원 회의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유해 발굴 관련 질의들이 이뤄졌다. 수몰사고 희생자 위패가 봉안된 우베 서광사의 주지 스님은 지난해 처음 관음종 위령재에 참석해 향을 사르고 희생자 추모에 동참했다.

관음종은 "한국의 국회 토론회와 사진전을 비롯해 일본 현지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3월 26일 일본을 방문해 위령재를 봉행할 예정"이라며 "조세이 탄광의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의 유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과거천년 미래천년
천년을 세우다
희망의 미래불교를 열어가는 길에
사부대중의 수희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 선명상프로그램 개발 • 명상센터 설립
✓ 미래세대 인재양성(어린이 • 청소년 포교지원)
✓ 교구(지역불교) 활성화
✓ 출가 장려 운동 전개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열암곡 천일기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 기도접수 : 전국 사찰종무소 ■문의 : 02-6273-0108(아름다운 동행)